

# 경북북부지역 담배산업 현황

- 한국담배인삼공사 경북지역본부 관할 중심으로 -

## 이 우 용

한국담배인삼공사 경북지역본부장

### □ 개 황

- 경북북부지역은 산림지역이 많고 경작면적이 작아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고, 밭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잎담배경작이 주요 농산물 중 하나임.
- 북부 4시, 8군의 938천명의 인구는 노령화, 탈 농촌 현상으로 년 1%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제조담배의 총 소비량도 년 1.5% 정도 감소하고 있음.

### □ 담배판매

- 상주인구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평균 담배흡연량이 전국 93.4갑인 반면 경북 북부 지역은 103.2갑으로 10% 높음. 미성년자의 구성비율이 낮고 20%에 이르는 “내고장담배판매” 로 관외판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.
- 12개 시,군에서 년 97백만갑으로 전국 소비량의 2.2%인 경북북부지역 담배판매는 1,300원급이상 고급담배가 50%에 이르러 전국 34%보다 16%나 높음. 산업시설의 빈약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35.7%의 세수원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(년436억원)는 자치단체의 관심 고조로 경쟁사와의 시장관리에 일익이 되고 있음.

### □ 잎담배 생산

- 밭이 많은 지리적 특성에 판로와 가격보장의 잇점 때문에 오랜 황색종 주산

지로 잎담배 경작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.

- 6개시 8개군의 경작관리로 영업구역보다 넓으며 9개 생산협동조합에서 6,500 ha에 15,000M/T의 잎담배를 생산하며 황색종 기준으로 전국의 37%, 전 품종으로 25%를 차지하고 있음.
- 순한담배 선호도증대에 따라 저유해성 품종인 KF114를 주로 보급하고 있으며, 경작지 선정과 시비관리의 엄격한 표준화 시행으로 양질엽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.
- 농민의 소득증대 욕구와 농산물 가격의 국제적 비교열위를 대응하기 위하여 잎담배 생산의 양적 관리를 위한 계획생산을 추진하고 있음.